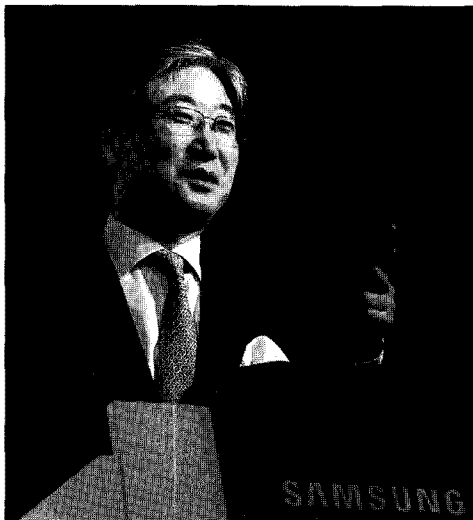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생을 위한 CEO 특강

채선기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부



•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윤부근 사장

“2등의 눈에는 1등만 보이지만 1등의 눈에는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윤부근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사장은 29일 한양대 백남학술정보관에서 열린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생을 위한 CEO 초청특강’에서 ‘차별화와 발상의 전환’을 강조하며 “삼성전자가 세계 TV 시장에서 1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상상력의 산

물”이라고 말했다. 또한, 프레임(frame·사과의 틀)을 깨고 발상의 전환을 할 것을 수차례 강조했다. 1등을 쫓아가기에 급급해하지 말고 상상력을 동원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윤 사장은 “남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기도 기회로 바꾸는 발상의 전환은 운명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흔히 대학생들이 ‘삼성맨’ 하면 떠올리는 지적이고 차가운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푸근한 인상의 윤 사장은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와 재치 있는 프레젠테이션으로 강당을 가득 메운 학생들을 집중시켰다. 윤 사장은 “평소 말주변이 없고 사투리도 심해 강연을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했지만 1시간 여에 걸친 강연 동안 삼성전자가 세계 TV시장을 주도해나가는 과정을 흥미진진하게 소개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영상디스플레이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경영자(CEO)답게 자신의 경영 노하우와 경영 철학을 유려하게 전달했다.

그는 “처음 두께가 얇은 LED TV를 개발하라고 지시를 내렸을 때 엔지니어들은 4cm가 한계라고 했

지만 소비자들은 3cm 정도를 가장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 “더 얇게 만들라고 주문했고, 결국 29.9mm의 제품이 탄생했다”고 말했다.

윤 사장은 ‘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환경은 같지만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라”고 조언했다. 윤 사장은 “내 앞에 와서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면서 “그걸 알기 때문에 임원들도 그런 말을 잘 안한다”고 말했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이 필요하다. 이는 ‘아웃라이어’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그는 ‘생활의 달인’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반복에 반복을 거듭하다 보면 그 분야의 달인이 된다”면서 “적어도 1만 시간은 투자해야 전문가가 되는 만큼 자기 분야에 미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대담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라는 주문도 했다. 윤 사장은 “5년, 10년 뒤에 집을 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적금에 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된다”면서 “아무리 소박한 꿈이라도 꾸지 않으면 방향성이 사라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 사장은 차별화, 스피드, 원가경쟁력, 주인의식(오너십)을 자신의 네 가지 경영철학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강의시간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수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라”면서 “명하게 쉬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으면 내 시간이 아깝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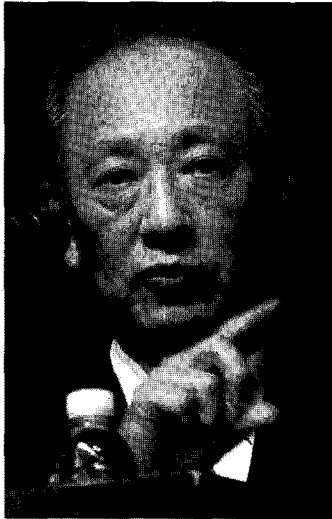
윤 사장은 “나 역시 입사 후 TV개발팀에 있다가 다른 부서에서 해외공장을 짓는 업무를 맡게 되자 좌천이라고 생각하고 그만 둘까도 생각했지만

이 일 역시 내 것이며 여러 분야에서 경험하는 게 내게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때 그만뒀으면 삼성전자 사장이 돼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근 방영된 ‘남자의 자격’이라는 TV 프로그램을 언급하면서 합창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합창단 전원이 한 목소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예로 들며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은 인생을 망친다. ‘내가 아니면 안 돼’ 라는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입사를 꿈꾸는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우리 회사는 끼가 많은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며 “들어오면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장을 충분히 마련할 테니 학교에서 기초를 많이 닦고 들어오라”고 말했다.

강연이 끝난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대학생 시절 꿈과 비전이 무엇이었느냐’는 한 학생에 질문에 윤 사장은 “능력 외에도 운이 따라야 하는 사람은 신이 주는 자리라고 생각해 부사장까지는 오르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삼성전자 이공계 출신을 선호하는 것 같다’는 한 경영대 학생의 질문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는 인간의 심리를 파악해 제품을 만들고 팔아야 하기 때문에 전공에 상관없이 끼가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자신만의 좁은 프레임을 깨고 동료들과 협업하면서 창의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더 중요한 만큼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 하나금융그룹 김승유 회장

2010년 10월 6일 서울경제신문과 한국대학교 육협의회 공동 주최로 서울 중앙대 학생회관 루이스홀에서 열린 김승유 하나금융그룹 회장 초청 특별강연에는 많은 학생들이 참석해 김 회장의 강연에 귀를 기울이며 관심을 보였다. 김 회장은 이날 강연에서 서민금융지원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생들에게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김회장은 서두에서 우리나라의 비약적인 경제 발전 성과를 극찬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지난 1970년에서 2009년까지 119배나 성장했으며 수출규모는 1970년 8억달러에서 2008년에는 4,220억달러에 이르렀다”며 “1970년 이후



수출 10위권에 새로 진입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중국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높아진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비해 사회 양극화에 대한 대비는 아직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사회의 주축이 돼야 할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다”며 “상대빈곤율이 1992년 7.7%에서 2008년에는 14.3%까지 증가한 것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비와 부채의 영향으로 1999년 이후 중소득·저소득층 모두 저축률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걱정했다.

김 회장은 “시장은 우리에게 자본주의 경제뿐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가치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승자 독식에서 승자 나눔 사회로 전환되는 창조적이고 박애정신이 배어 있는 신자본주의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지역의 첫 자립형 사립고인 하나고의 이사장이기도 한 김 회장은 “이튼스쿨 졸업생들이 모두 옥스포드대나 케임브리지대 등 대학에 진학하는 줄 알지만 취업을 선택하는 사람도 많다”면서 “산업체 재직자 특별전형은 참 좋은 제도”라고 화답했다. 김 회장은 “10~2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을 통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자주 하지만 다중(多衆)을 상대로 강연은 많이 하지 않아 부담스럽다”면서도 1시간 여에 걸친 강연 동안 확신에 찬 어조로 서민금융지원 사업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오늘은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아니라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미소금융과 관련된 자리라면 어디라도 달려갈 준비가 돼 있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마이크로 파이낸스 사업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다. 특히 김 회장은 “서민금융지원 사업은 측은지심(惻隱之心), 즉 인간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고등교육을 받는 등 사회로부터 혜택을 입은 우리들이 꼭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2009년 현재 전 세계 마이크로파이낸스 대출고객이 8,610만여 명인데 총 1,395개 기관이 이들에게 모두 441억 9,900만달러에 달하는 서민지원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다. 특히 113개 개발도상국에서는 마이크로파이낸스 대출규모가 2001~2008년에 연평균 44% 성장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김 회장은 서민금융사업이 세계적으로 발전한 배경에는 무엇보다 국제적 저명인사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동참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빌 게이츠 전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은 280억달러를 빌 게이츠재단에 (사회공헌자금으로) 내놓았고 워런 버핏은 440억달러가량의 자산 중 370억달러를 다섯 개 (사회공익) 재단에 내놓았다"고 소개했다. 스페인의 소피아 왕비도 '2011년 마이크로크레디트 서밋'의 의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도 서민금융에 대한 명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 대목이다. 김 회장은 "미소금융사업의 재원으로 향후 10년간 당초 계획인 2조원을 넘어서 2조5,000억~2조7,000억원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그는 "저희(미소금융중앙재단)도 내년부터는 기부를 받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려고 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김 회장은 소중하게 마련된 재원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미소금융재단은 공정한 자원관리를 위해 6월 말 전국의 대학생, 금융전문가, 퇴직 금융인 및 민간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미소희망봉사단을 창설했다"며 "국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봉사단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기

도 했다. 김 회장은 "봉사단의 학생그룹은 금융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을 발굴하고 전문가그룹은 이들을 1대1로 맡아 자활창업 컨설팅을 해주며 퇴직·봉사자그룹은 사후 대출관리와 창업 노하우 전수 등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지원(경영4)양은 "평소 금융권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학교 취업 홈페이지에서 특강이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고 손꼽아 기다렸다"면서 "금융계에 몸담고 있는 최고경영자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인생의 진로를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이지승(경영2)군은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자체가 스스로 질 책임이 있다는 대목이 인상적이었다"면서 "현 사회와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사회인으로서의 역할 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한 강연이었다"고 강평했다.

이태경(법학4)군은 "하나금융그룹이 금융사업만 하는 줄 알았는데 보육·노인요양·다문화가정·교육 등 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강연이 끝나고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어떻게 극복했느냐"는 한 학생 질문에 대해 김 회장은 "미국 유학시절 주유소 급유원, 빌딩 청소부 등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힘들다고 느끼기도 했지만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극복할 수 있었다"면서 "강의실이나 책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을 실제 삶 속에서 배운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회고했다.

그는 이어 "직원들에게 항상 '이게 될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건 된다'라고 자기체면을 걸라고 주문한다"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기 확신이 없으면 될 일도 안 된다"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것을 학생들에게 주문했다. ■